

normal responders.

P-5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에서 메트포민 치료의 효과와 인슐린 저항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¹, 의학연구원 인구의학연구소²

황규리 · 최영민^{1,2} · 구승엽¹ · 서창석^{1,2} · 김석현^{1,2} · 김정구¹ · 문신용^{1,2}

Background & Objectives: 다낭성 난소증후군 여성에 있어서 배란 및 월경 회복에 미치는 메트포민 의 효과와 인슐린 저항성의 관련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Method: 2001년 9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한 여성 중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진단된 23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메트포민을 투약 후 규칙적인 월경 또는 배란의 유무를 조사하였고 각 군의 인슐린 저항성의 양상을 비교하였다.

Results: 23명의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 중 11명 (47.8%)에서 메트포민 투약 후 규칙적인 월경 또는 배란이 회복되었으며, 12명 (52.2%)에서는 메트포민을 3개월 복용 후에도 만성적인 무배란이 지속되었다. 체질량 지수는 각각 $23.04 \pm 8.32 \text{ kg/m}^2$, $22.24 \pm 3.63 \text{ kg/m}^2$ 으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HOMA 지수는 메트포민에 반응을 보인 군에서는 4.07 ± 4.39 , 반응을 보이지 않은 군에서는 2.69 ± 1.16 으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onclusions: 비만하지 않은 다낭성 난소증후군 여성의 경우, 인슐린 저항성 여부에 상관 없이 메트 포민이 월경 및 배란 회복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P-6 Effect of the Quality and Origin of Sperm on Fertilization, Zygote Morphology, Early Cleavage and Pregnancy Outcome after ICSI

EJ Oh, IK Jeon, CW Kim, KR Kim, JH Kwon, SI Roh, HS Yoon

Mizmedi Hospital, Infertility Research Center, Seoul

Background & Objective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quality and origin of sperm on zygote morphology, first cleavage time and pregnancy outcome after ICSI. Study groups were divided into five according to the quality and origin of sperm. A; normal (control, n=415 embryos/ 97 cycles), B; mild oligoasthenoteratozoospermia (OATs, n=536 embryos/ 127 cycles), C; severe OATs (n=149 embryos/ 38 cycles) in the ejaculated sperm group and D; testicular sperm from obstructive azoospermia (n=45 embryos/ 11 cycles), and E; testicular sperm from non-obstructive azoospermia (n=38 embryos/ 8 cycles).

Method: A total of 341 cycles undergone ICSI from May 2002 to March 2003 at MizMedi Hospital were studied respectively. Zygote morphology (size difference, average size, nucleoli patterns of PN and cytoplasmic halo) were compared. Nucleoli patterns were subdivided into three groups; symmetric, asym-